

고전지식인의 眼疾과 그 의미에 대하여 – 눈의 발견, 修養의 방식 –

김 승룡*

차례

- | | |
|-----------------------|----------------------------|
| 1. 문제제기: '眼疾'을 마주한 변명 | 5. 결론을 대신하여: 안질과 閱讀에 대한 의문 |
| 2. 눈을 다시 바라보다 | |
| 3. 눈과 다른 감각에 눈뜨다 | |
| 4. 육안을 넘어 心眼을 추구하다 | *부록. 眼疾漢詩資料初編 |

국문초록

이 글은 고전지식인들이 眼疾을 계기로 쓴 한시를 대상으로, '눈'을 발견하고, '눈'과 다른 감각을 확인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심안'을 꿈꾸었던 생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질'은 눈에 발생한 질병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집총간』을 대상으로 '眼疾'을 키워드로 확인할 경우, 대략 『한국문집총간』 가운데 152종의 문집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것이 아니며, 그 경향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질이 고전지식인들의 常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그들이 앓았던 안질의 증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세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는 없었다.

안질은 지식인들에게 '눈'의 역할과 기능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눈과 다른 감각들, 이를테면 귀(청각)와 같은 감각에 눈뜨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肉眼에 머물지 않는 心眼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점차 감각에 대하여 이해가 깊어갔다. 그러나 한편, 지식인들은 자신의 열독 및 학습의 심도 강조를 위하여 안질담론을 활용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학문적 모델이 지녔던 안질을 닮으려고까지 하였다.

주로 한시를 대상으로 다룬 탓에 단편적 언술에 의지하여 논증한 한계가 있다. 이후 안질과 관련한 담론을 재정돈하여, 세상과 만나는 창문으로서의 '눈'이 갖는 역사적, 미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한다.

주제어 : 고전지식인, 안질(눈병), 수양, 감각, 마음의 눈.

1. 문제제기: '眼疾'을 마주한 변명

이 글은 眼疾이 창작의 계기가 되어 쓰인 한시를 대상으로, 그들이 안질과 관련하여 가졌던 생각들을 추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눈'은 인간의 감각 가운데 가장 유용하며 의미 있는 감각으로 불린다. 외계와의 자극 대부분이 눈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안질'은 눈에 생긴 질병을 뜻한다. 한의학적으로 안질에 포함되는 병증으로는 諸障翳, 雀眼, 爛弦風, 瞳子突出, 迎風冷淚, 眼痛, 內外眥疾患, 青盲, 努肉攀睛, 瞳子疾患, 不得開眼, 遠視不明, 近視不明 등이 있다.¹⁾ 이와 관련하여 고전지식인들이 자주 거론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

1) 한창현 · 박상영 · 안상영 · 권오민 · 이봉효 · 안상우 외, 「국내 침구서적의 안질환 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2-3,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9, 81-83쪽.

확하지 않다. 비교적 병증과 치료의 방법이 상세한 것은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왕들의 경우이다. 현종의 경우, 재위 6년 이후 안질을 가장 많이 앓았다고 했고, 그에 대한 의학적 처방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위에 거론한 어떤 병증을 보이는 안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²⁾

이 글을 위해 한국문집에 나오는 안질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眼疾'로 검색할 경우, 총 152권의 문집에서 기록되어 있었으며 152권 중 2회 이상 기록된 40권을 제외한 112권에서는 1회씩 기록되어 있었다. 문체는 書(111회), 詩(37회), 啓·疏(34회), 行狀(9회), 錄(8회), 記事·日記(8회), 墓誌(4회), 年譜(3회), 序·跋(3회), 傳(1회), 賦(2회), 기타(5회) 등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회수는 고전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한 것으로 빈도를 이해하는 데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³⁾ 아래에 2회 이상 빈출을 보이는 문집과 회수를 표로 제시해둔다.

연번	문집(작가)	회수
1	『목은고』(이색)	3
2	『매계집』(조위)	2
3	『보재집』(김안국)	2
4	『용재집』(이행)	2
5	『퇴계집』(이황)	8
6	『율곡전서』(이이)	2
7	『한강집』(정구)	2
8	『이충무공전서』(이순신)	2

2) 이상원, 「조선 현종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1, 47-50쪽.

3) 이외에 『승정원일기』에 50조목, 조선왕조실록에 94조목, 『일성록』에 13조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그 경향을 알려줄 뿐이다. 검색어를 '眼病'으로 할 경우, 문집총간에 258조목이 확인되며 사서류에는 십여 조목이 추가로 확인된다. 검색을 통해 확인된 자료는 경향만을 보여줄 뿐, 검토대상 모두를 보여주진 못한다. 이를테면 고려중기 吳世才의 <病目>(老與病相隨, 窮年一布衣. 玄華多掩映, 紫石少光暉. 怯照燈前字, 羞看雪後暉. 待看金榜罷, 閉目坐忘機)가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해주고, 안질 속의 내면의 고통을 읽어낼 것을 요청하신 토론자 엄경홍 교수의 지적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9	『여현집』(장현광)	7
10	『어우집』(유동인)	2
11	『우복집』(정경세)	3
12	『남파상국집』(심열)	7
13	『경정집』(이민성)	2
14	『은봉전서』(안방준)	3
15	『잠곡유고』(김육)	2
16	『용주유고』(조경)	3
17	『고산유고』(윤선도)	2
18	『양파유고』(정태희)	2
19	『송자대전』(송시열)	4
20	『육곡유고』(서필원)	2
21	『갈암집』(이현일)	7
22	『제월당집』(송규렴)	3
23	『수촌집』(오사수)	2
24	『경암유고』(윤동수)	2
25	『구사당집』(김낙행)	2
26	『녹문집』(임성주)	4
27	『소산집』(이광정)	2
28	『이재유고』(황윤석)	2
29	『연경재전집』(성해옹)	2
30	『여유당전서』(정약용)	3
31	『존재집』(박윤묵)	3
32	『성옹유고』(김덕함)	2
33	『석담집』(이윤우)	2
34	『무민당집』(박인)	2
35	『육우당유고』(이하진)	2
36	『하정집』(이덕주)	2
37	『최정집』(신제인)	7
38	『탁계집』(김상진)	2
39	『가암유고』(김귀주)	4
40	『제암집』(김종섭)	2

그런데 하나의 난제가 있다. 이들의 ‘안질’ 언급은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애초 ‘안질’을 주제로 글을 준비할 때에, 다소 세밀한 의학적 언급 및 그에 따른 지식인의 고뇌와 사유를 읽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자료를 읽고 정리하면서 그 기대는 무참히 사라졌고 난관에 봉착

하고 말았다. 많은 경우 안질은 고전지식인의 常病으로서 늘 습관적으로 투덜대는 추임새 같은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稱病하며 자신의 독서량을 과시하거나 學人으로서의 자질에 궁지를 보이며, 가끔은 안질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핑계로 삼기도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게 되었다며 아쉬워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또한 위 표에서 보듯, 안질을 2회 이상 거론한 사람들이 겨우 40인에 불과하며, 그 역시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해서, 글의 서술전략을 바꿔서 안질을 소재로 한 시를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작자의 마음과 그가 안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기로 했다. 하나의 변명 같은 소리이지만 자료가 말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이 정석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 글은 안질을 주제로 혹은 소재로 다룬 시 속의 목소리를 몇 개의 가닥으로 나누어 다루기로 한다. 시대 또한 특정 왕조에 한정하지 않고 고전지식인 전반을 다루도록 한다. 특별히 시대에 따른 특징은 보인다고 확인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나의 작가에 주목하지 않고, 고전지식인의 시를 주제에 따라 펼쳐서 다루고자 한다. 특정 작가를 안질 하나에 제한하여 다루기엔 너무 많은 팔호를 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글을 쓰는 내내 쥐고 있었던 화두는, 안질을 거론하는 이들의 마음은 무엇이며, 이들이 안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혹여 저들의 지식인다움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다. 안질은 '눈'이 장애를 만난 것으로, 눈(시각)이 주는 다양한 역사적, 미학적 의미와 연동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눈의 미학적 가치를 따지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했음을 고백한다. '안질'과 관련한 자료의 해독이 만만치 않았고, 상투적이고 평범한 표현 안에 들어있는 작자의 고뇌를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웠다. 겨우

4) 임철규는 『눈의 역사, 눈의 미학』(한길사, 2004)에서 눈에 대한 역사와 미학을 다루었다. 주로 서양 문헌을 다루었다. 차후 동아시아 문헌 속의 '眼'에 관한 논의를 다루기를 기약해본다.

시의 몇 가닥을 쥐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엇보다 이 글의 한계를 다시 거론하도록 한다. 첫째, 특정 작자의 안질만을 살펴보지 않는다. 논의는 주제의 범박함 속에서 遊泳하다가 빛밋한 결론에 이를 위협이 다분하다. 둘째, 덕분에 특정 작자만의 창작개성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사실 이는 같은 안질에 대한 작가간의 비교가 필요할 정도로, 이들 사이의 뚜렷한 변별점을 찾기 어려웠다. 셋째, 결국 眼疾詩에 대한 논구가 되고 말 일이었다. 넷째, 시 속의 안질과 그에 대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에 있어 다소 주관적 서술이 농후해진 면이 있다. 기실 논증할 수 있는 측면이 제한된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다섯째, 시의 구체적인 창작배경을 거론하기 보다는 안질과 관련된 생각들, 논리들을 추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탓에 시 각각의 배경적 이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시 자체의 논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안질시 가운데 개성적인 작품이 많지 않았음도 지적해둔다. 논자의 選眼의 부족도 이유지만, 창작이 상투화된 데도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럼, 李萬運(1723~1797, 호 默軒, 자 仲心)의 <眼疾自嘆>을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半日開明十日閉
暫時無苦長時呻
堪嗟七十多年活
不及他人七箇春

한나절 눈을 떴다가 열흘은 감고 사니
잠깐 고통이 없을 뿐 오래도록 신음하네.
쯧쯧, 칠십 남짓 살았어도
남들 7년 산 것만 못하구나.⁵⁾

2. 눈을 다시 바라보다

앞장에서 보았듯, 이만운은 겨우 하루의 반만 눈을 제대로 뜨고 살며,

5) 『默軒先生集』 卷1, <眼疾自嘆>

열흘은 고통에 살고 있다. 그러니 고희를 넘긴 나이에도, 이제 일곱 살 백이의 삶만 못하다고 자탄하고 있다. 안질은 長壽의 즐거움도 앗아간 셈이다. 만년의 안질에 대한 탄식은 고려의 이규보(1168~1241)에게도 나타난다. 그것을 들어본다.

比因左目患	요즈음 左쪽 눈이 아파서
久矣不作詩	오랫동안 시를 짓지 못하였노라
猶有右目存	그래도 오른쪽 눈이 남아 있는데
云何迺如斯	어찌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君看一指傷	그대 보게나,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滿身苦難支	온 몸이 괴로워 견디기 어려운 법,
安有目官慟	어찌 눈이 아프건만
同類恬不隨	같은 부류러니 담담히 따르지 않으리오
興復從何出	홍취가 다시 어디에서 나와
而事作詩爲	일삼아 시를 지으리오 ⁶⁾

이규보는 이 시를 73세 되는 1241년 8월 29일에 짓고, 그로부터 사흘 이 지나 세상을 떠났다. 73세에 지었으니, 앞의 이만운과 같은 연배에 지은 것이다.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는 것은 신체적 쇠퇴의 징후이다. 그런 점에서, 이규보가 만난 안질은 자연스러운 일이이라. 그러나 그는 이를 평계로 시를 짓지 못하겠다고 투덜댄다.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괴롭듯이, 눈 하나가 아파서 시를 짓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규보의 이 변명은 ‘변명’일 뿐이다. 이 즈음 그는 꿈속에 나타난 미녀를 두고 두 차례나 시를 지은 적이 있다. 첫째 날 나타난 미녀더러, 왜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냐고 하더니만, 이튿날 꿈에도 같은 미녀를 보았다며, 왜 늙은 나를 괴롭히냐고 타박한다. 그로부터

6) 『東國李相國後集』 卷10, <七月八月, 因患眼不作詩>. *한시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간행 번역서를 존중하여 약간의 가감을 더하였다. 이후 다른 자료의 경우도 번역서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이며, 일일이 서지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다.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났으니, 위 시와 같은 때에 지은 게 확실하다. 평생을 시를 지으며 살았던 이규보에게 시를 짓는 일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었을까? 예년만 흥취가 나지 않음은 이해되지만, 자신의 창작태만(?)을 안질에 돌리고 있음이 낯설게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君看一指傷, 滿身苦難支”라 하여, 눈의 고통이 만신의 고통임을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음이다. 이런 생각은 안질을 통해 눈과 다른 감각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는 것과 연동된다.

또 하나, “興復從何出, 而事作詩爲”라 하여, 안질로 인하여 흥취나 나오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각을 통해 외부세계와의 접속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작자의 내면에 흥취가 생겨나는 바, 시각의 제한은 결국 창작자가 자신을 표현할 길의 상실을 의미한다. 눈과 창작과의 관계는 이승인의 <眼疾>에서도 확인된다.

阿堵昏花未易醫	아도에 허공 꽂 어른어른 쉽게 낫지 않아
彼蒼噴我好看詩	시 보기 좋아한다고 하늘이 나를 혼내나봐.
逢人豈作嗣宗白	사람을 만나도 사종의 白眼을 어떻게 지으랴
視物眞成老子夷	물건을 보면 노자의 夷의 경지를 진정 이룬다네.
翻覆多時尤有味	번복이 많은 시절이라 더욱 묘미 있고
妍媸擾處竟無知	곱다 추하다 떠들어도 아예 무감각일세.
閉門塊坐蒲團上	문 닫고 방석 위에 훑덩이처럼 앉았나니
遮莫兒曹笑大癡	천치 바보라고 아이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⁷⁾

‘阿堵’는 육조 시대의 구어로서 ‘이것’이라는 뜻인데, 바로 ‘눈’의 대칭으로 쓰인다. 顧愷之가 사람을 그린 뒤 수년 동안 눈에 점을 찍지 않았는데,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그림에 정신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바로 ‘이것’ 안에 있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눈 안에 검은 점, 즉 눈동자에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후로 눈의 대칭으로 쓰였다. ‘阿堵昏花未易

7) 『陶隱集』 卷2, <眼疾>

醫'라고 했으니 눈병이 생겨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문제는 제2구이다. 즉 '彼蒼嗔我好看詩'라고 했으니, 곧 시를 좋아하는 나를 시샘/분노한 '彼蒼', 하늘, 조물주가 안질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승인은 여말 三隱 가운데 시문학을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들어가니, 이 말은 언뜻 보면 자부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시 창작에 뛰어났던 사람에 대한 하늘의 꾸지람, 시샘이란 것이다. 왜 하늘은 시 창작을 꾸짖었을까? 작자는 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은 채, 뜻밖에도 안질로 인하여 초래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다. 흔히 세상의 원리, 비밀을 시인이 읽어내고 표현하는 것을 하늘이 싫어한다고 한다. 이를 굳이 거론하지 않은 것은 작자의 주안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제3구~제6구를 보자. 완적의 白眼과 노자의 夷는 다소 희학적인 표현이다. 눈의 기능이 반기는 것 보다 남을 훌기거나 시기하는 기색을 표현한다는 것,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의 '夷'의 단계(『노자』 14장)를 거론하여, 눈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이후 세상의 변화무쌍한 현실들, 흡사 두보의 <貧交行>(『두소릉시집』 권2)에 보이는, "손 젖히면 구름 일고 손 엎으면 비 오게 하는, 경박한 세상인심 따질 것이 뭐 있으랴(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하고, 남들이 '妍媸'를 따지지만 끝내 '無知'한 상태가 되어 있음에 다소 위안을 받는/자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塊坐'하고 있어서, 남들로부터 '大癡'라고 비웃음을 사는 말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내보이고 있다. 애초 '昏花'에 대한 탓을 하늘의 시샘/꾸지람으로 돌렸던 작자는, 되레 그것이 끊임없이 번복되는 세상의 인심들을 마주하여 오히려 자신을 앓지 않고 느긋하게 다가설 수 있는 '무지'와 '대치'를 주었음을 역설적으로 강변하고 있다. 그래서 제5구의 '尤有味'가 더욱 애恸하게 다가온다. 李荇(1478~1534, 자는 擇之, 호는 容齋)도 <邇來, 兩眼

昏昧益甚，造物相厄，乃至是耶。聊以長韻敍意大書，奉投挹翠軒>에서 조
물주를 탓하고 있지만 詩旨의 방향은 약간 다르다. 이를 들어본다.

我性喜詩又喜酒	내 성품 시 좋아하고 또 술 좋아하니
天意亦應忌兼併	하늘은 역시 다 차지하는 것 꺼리나 봐.
百瘡千窮觸時諱	몹시도 곤궁하고 시晦에 저촉되는데도
此事未足當吾病	이것도 내 병을 감당하기엔 부족하여라.
去年喪明乃無妄	지난해 시력 잃은 건 무망중 일어난 일
有似游塵翳清鏡	며도는 먼지가 맑은 거울에 긴 듯하였지.
本不好讀頗更懶	본래 책 읽기 안 좋아하다 더욱 게을려져
但憂未與人事屏	다만 인사를 물리치지 못할까 걱정이로세.
邇來昏暗復太深	근래 들어 눈 어둡기가 더욱더 심해졌는데
舊號無罪今安命	예전엔 하늘 원망했으나 이젠 운명에 맡기노라.
夜戒僮僕莫舉燭	밤중에 종들에게 촛불 켜지 말라 주의 주고
曉唯怯見陽輝映	새벽에는 비치는 햇살 보기가 겁이 나누나.
細字錯亂已難尋	가는 글자는 착란되어 이미 읽기 어렵고
大字更覺龍蛇橫	큰 글자는 또 용과 뱀이 누운 것처럼 보여라.
昔賢觀人取眸子	옛날 현인 눈동자 통해 사람을 관찰하셨으니
愧我胸中或未正	내 가슴속도 혹 바르지 못할까 부끄럽구나.
雖然折足亦非禍	비록 그렇지만 다리 부러진 게 화가 아니니
疹疾焉知不爲慶	진질이 외려 복이 될지 어찌 알 수 있으랴.
小兒導余勸窺園	어린아이가 날 인도해 동산 보라 권하나니
粲粲霜菊秋容靚	고운 국화 서리 맞아 가을 용모 아름다워라.
良辰寂寞方獨醒	이 좋은 날 적막하게 홀로 정신만 말뚱하니
此生觀渠幾衰盛	이승에서 저 꽃 피고 지는 것 몇 번이나 볼꼬.
白頭臨風發三嘆	백발로 바람을 맞으며 세 차례 탄식하노니
不能自己聊諷詠	마음을 주체 못하여 애오라지 시를 읊조리노라.
城南佳土且未見	성남의 좋은 선비를 또 보지 못하였는데
落日祗令心內惄	지는 해는 그저 이내 마음 애탏게 할 뿐
願借銀篦刮兩瞓	바라노니 이 은비로 두 눈의 막 긁어내고
湖海清遊得究竟	청아한 강호 유람을 마저 끝마치고 싶어라. ⁸⁾

8) 『容齋集』 卷3, <邇來, 兩眼昏昧益甚, 造物相厄, 乃至是耶. 聊以長韻敍意大書, 奉投

제1구에서 ‘喜詩’라 하여, 자신의 안질과 시 창작이 유관하다는 단서를 묻어두고 있다. 그 또한 ‘天意’의 시샘으로 곤궁하게 되었고, ‘喪明’한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던 모양이다. 생각도 못한 상황에 다가온 안질에, 걱정은 여전히 인사가 주위를 떠돌고 있음이었다. 그래서일까? 하늘은 더욱 가혹하게 ‘昏暗’을 주었고, 이제 작자도 ‘無罪’를 호소하기보다는 ‘安命’하게 된다. 병을 처음 만났을 때에 누구든 천형을 안겨준 하늘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이 가진 뜻을 기어이 펼쳐 보이려고 애쓰는 법이다. 허나 돌아보고 나면, 그때 그 시절에 닥쳤던 병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새로운(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轉化시켜주었다. 물론 전제가 있다. 그때의 병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삶의 방식과 태도, 의지에 변화를 주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건이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작자가 제시한 ‘安命’은 흥미롭다. 숙명이니, 운명이니 하는 무거운 언어보다 ‘안명’이라 하여 작자가 주어진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리하여 나름의 주동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게 수용하는 순간, 그 상황을 바탕으로 다시 삶을 재조정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숙명과 안명의 의미 차이가 그다지 멀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본래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여 복종하는 것과는 달리, 주어진 상황을 그 때의 특수한 처지로 이해하고 다가온 병을 주체적으로 맞받아 가려는 작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⁹⁾ 이후로 시상의 분위기는 변화한다.

挹翠軒>

9) 안질을 숙명으로 받아들고 자신의 뜻을 꺾는 예로는 李穡이 입전한 崔霖을 들 수 있겠다. 『牧隱文藁』 卷20, 「崔氏傳」, “辛巳十韻科崔霖, 父諱成固, 郎將. 母蔣氏, 某官某之女. 霖嗜酒吟詩, 好游僧房, 非沽酒者去之, 有寒溪釋甚相得, 淋漓相從, 禮法之士頗短之, 猶以才高故, 稍貌敬焉. 癸巳秋鄉試, 僕幸獲與崔氏聯中, 及會試中書堂, 崔氏眼疾作, 艱於書字, 乃歎曰, 吾所得, 僥倖者也. 今才高於予者二人焉, 屈二人而必得之, 非吾所望也. 眼之如此, 必天也. 吾將寄舉焉, 乃不赴試.” *‘安命’과 ‘宿命’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본문의 논의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차후 화두로 삼고 공부해 나가기로 한다. 이 부분을 지적해준 십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애써 등불을 켜서 책을 읽지 않으려 하고, 흐릿하고 착란되어 보이는 글자가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 눈을 통해 마음을 읽었다는 성현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한다. “莫良於眸子”라고 했다. 그 논의에 충실하게, “昔賢觀人取眸子, 愧我胸中或未正”라고 하여, 혹여 흐릿해진 눈동자를 보고 나의 마음을 읽어낼까 두려워한다. 이 부분은 제4장에서 후술될 부분인데, 일단 ‘眸子’과 ‘胸中’의 연계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질은 눈을 발견함과 동시에, 눈을 통해 또다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다. 작자는 자신의 마음이 ‘未正’일까 걱정한다. 그래서일까? “雖然折足亦非禍, 瘴疾焉知不爲慶”와 같은 역설이 가능해진다. 기실 화와 경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다르게 보는 데서 기인한다. 塞翁이 자신의 아들 다리가 부러진 것을 두고 오히려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사로 여긴 것이 그것이다. ‘疹疾’은 재난과 우환을 뜻하는데, 맹자가 “사람 가운데 德慧와 術智를 지닌 사람은 항상 진질이 있기 마련이다”(『맹자』 盡心上)라며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경우 자신의 본성을 발동하고 기질을 참아서 더욱 능력을 향상시켰던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안질은 화난이 아니요 경사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허나 아직은 또렷하지 않다. 계속 되는 갈등들, 특히나 가을을 맞아 예쁜 국화를 피었다고 하지만, 그 꽃을 재대로 감상할 수 없을 지경이다. 결국 내가 살면서 얼마나, 몇 번이나 꽃구경을 하고 살는지 걱정일 뿐이다. 작자는 ‘白頭臨風發三嘆’하고, ‘落日祇令心惄惄’하며, 제대로 세상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까봐 걱정이다. ‘안명’이라고 했지만 완전하게 ‘안명’하진 못한 주저함을 엿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만다. 마지막 두 구가 그러하다.

願借銀篦刮兩膜 바라노니 이 은비로 두 눈의 막 긁어내고
湖海清遊得究竟 청아한 강호 유람을 마저 끝마치고 싶어라.

‘銀篦’는 은으로 만든 빗치개인데, 옛날 안질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였다.

화살촉처럼 생겼는데, 이것으로 눈에 낀 막을 제거했다고 한다. 맹인조차도 눈에 낀 막을 제거해주었다고 한다. 작자는 안질을 치료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람을 마치고자 한다. “湖海清遊”의 ‘清遊’는, 비록 ‘遊’를 미화한 말이긴 하지만, 안질 없이 세상과 마주하며 살고 싶다는 뜻을 슬쩍 내보이고 있는 표현이다. 여하간 안질은 청유를 가로막는 장애였다.

3. 눈과 다른 감각에 눈뜨다

안질은 고전지식인들에게 ‘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그것을 조물주의 시샘으로 받아들이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통증이든, 시 창작을 좋아한 나머지 얻은 傷痕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망중에 얻은 낯선 병증이든, 불편함은 오히려 ‘눈’을 통해 세상과 접속하고 소통을 했으며, 나아가 자신의 마음, 정신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안질은 元天錫(1330~?, 자 子正, 호 耘谷)의 솔직한 고백처럼 “눈병으로 몽롱할사 사방 둘러보는 것도 그만두었으니, 속 마음 착잡하고 답답하여 그저 읊조리며 탄식할 뿐(病眼朦朧休顧望。幽懷壹鬱但吟哦)”¹⁰⁾이었다.¹¹⁾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눈이 아닌 새로운

10) 『耘谷行錄』 卷3, <二十九晦日, 雨雪大作, 因眼疾甚無聊, 以示二三子. 三首>, “郊居寂寂絕經過, 終日霏霏雨雪多. 痘眼朦朧休顧望, 幽懷壹鬱但吟哦. 似聞雲鶴盈臺閣, 那見沙鷗到網羅. 欲與春工賭強壯, 掃予衰老付陽和.”

11) 안질과 관련한 시로 崔演(1503~1549, 자 演之, 호 良齋)의 <眼疾 三十韻>만큼 상세하게 안질의 경과와 추이를 시로 표현한 작품이 없는 듯하다. 본고에선 편 폭상 분석은 잠시 유보하고, 참고자료로서 제시해둔다. 『良齋集』 卷2, <眼疾 三十韻>, “早歲嬰憂患, 中年減視聰. 孤根難托地, 柄幹易生蟲. 眼界纖成霧, 肝家已受風. 非緣糠播眯, 祇是病來攻. 蟠蝕孤輪月, 塵侵百鍊銅. 先疑迷五色, 却恐眩雙瞳. 淚睫淋常纈, 眇眶澁不通. 開花看翳翳, 遇物視瞢瞢. 始訝忘南北, 今嫌亂白紅. 空聞談瞎馬, 那見送飛鴻. 湯熨謀誠短, 金篦術未工. 欲張猶翳障, 强揩轉朦朧. 不辨輿薪大, 難分泰岳崇. 着籬嘲主簿, 降渚怨湘東. 深羨懸珠溯, 多羞閃電戎. 昏昏唯瞌睡, 啾啾只書空. 競夕常辭客, 經旬每倚櫈. 早眠宜懶性, 損讀有奇功. 廢額頽留垢,

감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안질이 준 선물이라고나 할까. 먼저 李敏求(1589-1670, 자 子時, 호는 東州)의 <眼病 未嘗廢飲 十日眼病瘥 戲書>를 들어보자. 그는 안질을 앓으면서도 음주를 그만두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안질이 나았다. 안질 속에서 음주하는 입(口)의 효용을 발견하고 희작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眼汝職司明	눈아 너는 밝게 보는 것을 담당하였으니
爲口視食品	입을 위해 먹거리 보고서
可食不可食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取舍必先審	선택할 때 반드시 먼저 살폈지.
及眼病昏翳	눈병 걸려 시야 흐려지자
口亦失所稟	입도 타고난 기능을 잃었지
何嘗爲眼謀	어찌 일찍이 눈을 위해 도모했으랴
未肯廢湛飲	술 마시기를 그만두지 않았네.
三杯熱生花	석 잔에 열이 나서 눈이 침침하고
眵淚流滿枕	눈물 흘러 베개를 흥건히 적셨지.
懼其瞽疾成	장님아 될까 염려되어
獨心恒懷懷	혼자 마음으로 늘 두려웠는데
十日眼方蘇	열흘 지나자 비로소 눈에 생기 도니
美祿寧少寢	술을 어찌 잠시라도 벼려두랴.
相資却相負	서로 의지하다가 도리어 서로 저버린 채
覲然飮豐飪	뻔뻔하게도 맛난 음식 실컷 먹었으니
眼有君子度	눈은 군자의 풍도가 있건만
口乃小人甚	입은 소인의 작태 심하구나.
牖戶眼爲官	문의 역할을 눈이 맡아 한다면
口實猶倉廩	입은 실로 창고와 같네.
古人於辭受	옛사람이 주고받을 때에

慵梳鬢轉蓬. 藏杯封酒甕. 閣筆掛詩筒. 鍼石詢醫上. 陰晴問僕童. 徒憐身縮鼈. 無復氣干虹. 避世逢萌異. 離群子夏同. 養生乖叔夜. 推命訊虛中. 眇子懸昏睡. 善端可擴充. 禍雖疑左氏. 心不暗張公. 自歎浮生困. 還知賦命窮. 深思投組絃. 更欲脫樊籠. 安得能瞻日. 終教快發蒙. 不欺居屋漏. 安養保微躬.”

受義而反錦 국은 받고 비단은 돌려주었지.
口業固如此 입이 하는 일 진실로 이와 같으니
傾壺破寒凜 술병 기울여 추위나 이겨보자.¹²⁾

이 시는 읽다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된다. 시제처럼 안질을 앓고 있던 작자는 병중에도 술을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안질이 나았다고 했다. 그 와중에, 그간 눈과 입이 서로 공명하는 관계였음을 자각한다. “眼汝職司明, 為口視食品. 可食不可食, 取舍必先審”가 그것이다. 눈은 입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취사선택하는 일을 담당했었다. 그간 그런 줄 몰랐던 작자는 눈의 시야가 흐려지자 입의 기능도 앓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늘 있었건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자 그가 있었음을 알았던 것처럼 너무도 둘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었던 짹지였던 것이다.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난다. 곧 눈이 아프다고 굳이 눈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되레 술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다소 해학적일 정도다.

술 석 잔을 들이키자 열이 나더니 ‘生花’가 피었다. 생화는 안질로 인해서 어질어질한 것을 말한다. 눈물도 흘러나오더니 베개를 적시고 말았다. 끝내 눈을 멀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 열흘 만에 안질이 두 손을 들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작자의 이상한 고집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이 작자는 둘의 관계가 ‘相資’하기도 하고 ‘相負’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질을 겪으면서 눈과 資負하는 입을 알게 된 것이다. 작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눈은 군자요, 입은 소인이며, 눈은 문이요, 입은 곳간이라고 했다. “眼有君子度, 口乃小人甚. 脣戶眼爲官, 口實猶倉廩.” 위 네 구절은 특이할 정도로 눈과 입의 관계를 보여준다. 한국 한시에서 보기 드문 표현이다. 시는 결말에서 결국 술을 먹는 것으로 끝나고 말며, 작자

12) 『東州詩集』 卷21, <眼病, 末嘗廢飲, 十日眼病瘥, 戲書>

의 주안이 ‘입’에 있음을 보여준다. 눈이 입을 위해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주었다는 常例를 들먹이면서, 눈이 아프든 그렇지 않든, 입은 본래 뇌물만 아니면 먹을 수 있다면서, 술병을 기울여 ‘破寒’하겠다고 했다. 여하간 우리는 안질을 통해, 눈이 아닌 입의 生理에 눈뜨게 되었다. 다음은 朴允默(1771-1849, 자 土執, 호 存齋)이 봄새를 노래한 <春鳥賦>이다. 그가 새의 울음소리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90일간의 안질 때문이었다.

愛彼羣鳥之噪噪而嚶嚶兮	어여뿔사, 저 뜻새들 재잘재잘 지저귀노니
天固與之以鳴春.	하늘이 본디 봄을 올라고 했었지.
迺聲音之初變兮	이에 소리가 처음 변하더니
際發生之良辰.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날을 만났구나.
嗟余患九旬之阿堵兮	아, 나 90일간 눈을 앓았더니
寂無跫音之相及.	적막할사 찾아오는 이 아무도 없구나.
目不能看書兮	눈으로 책을 볼 수도 없고
手不能執業.	손으로 일을 할 수도 없어
或坐而或臥兮	더러 앓았다가 더러 누우니
如癡而如狂.	흡사 바보인 듯, 정녕 미친 듯하네.
迷觸霧而處晦兮	해매다 안개를 만난 듯 어둠 속에도 있고
纖生花而羞明.	눈은 어질어질하여 햇빛 아래 있기 부끄럽네.
于斯時也,	이 순간,
來微羽之羣聚兮	작은 새들 떼를 지어 찾아왔는데
曰黃口而素羽.	누런 입에 날개는 하얗네.
忘塵機而相近兮	속진의 기미를 잊고 가까이와
隔戶鳴而不停.	문 너머에서 울며 그치지 않는구나.
若解愁之惛惛兮	마치 흐릿흐릿한 시름을 풀려는 듯
若發心之惺惺.	마치 또렷또렷한 마음을 펴려는 듯
或于上而于下兮	혹은 날아올랐다가 내려오고
忽在東而在西.	갑자기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오네.
爭一枝而如鬪兮	가지 하나를 두고 다투며 싸우듯 하고

啄殘粒而相諧。
 破庭宇之寂寥兮
 迨新晴而亦佳。
 鳴呼，
 風以鳴冬兮
 固栗烈之可怒。
 虫以鳴秋兮
 是哀傷之如慕。
 惟彼鳥也，
 乘一氣之最先兮
 紛千語而得意。
 使人傾聽而不厭兮
 無非興情而悅耳。
 供枕上之消遣兮
 集庭隅而不去。
 紅鬱爲之滌祓兮
 衰悴爲之暢敘。
 誰謂閨中之巧婦兮
 余視階上之嘉賓。
 託交情於彼物兮
 及永日而相親。
 抵蕩朮之妙劑兮
 當絲竹之雅音。
 捏韓子之論說兮
 想葩經之諷吟。
 豈片時之可喜兮
 粵三春而永好。
 忘於耳而聽以心兮
 亦破閒之爲妙。
 忽焉烟連巷而蒼蒼兮
 日在山而冉冉。
 飛縹紛而欲棲兮
 情若失而黯黯。

흘린 낱알을 쪼며 서로 화락할시고.
 고요한 뜨락의 정적을 깨뜨리니
 마침 싱그럽게 갠 날이라 더욱 아름다워라.
 아하,
 바람 불어 겨울을 우는고야
 본디 부들부들 떨리니 성날 듯하이.
 풀벌레는 가을을 울어대고
 서러워 마음아플사, 정녕 누군가 그리는 듯하네.
 오직 저 새만은
 一氣 가운데 가장 앞선 기운을 타고는
 천만 마디 어지럽게 말하며 득의하여라.
 나를 귀 기울여 듣게 하나 싫지 않고
 어느 것도 興情 아닌 것이 없이 귀를 기쁘게 하네.
 침상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이받고
 뜨락 모퉁이에 모여 떠나지 않네.
 우울했던 마음, 너 때문에 씻기고
 초췌했던 정신, 너 때문에 화창해지네.
 뉘라서 규방의 솜씨 좋은 아낙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섬돌에 앉은 멋진 손님으로 보이네.
 저 놈과 교분을 나누면서
 긴 날을 서로 친하게 지내리라.
 삼이나 차조같은 교묘한 약제 같고
 실소리나 대소리의 雅音이라 하겠네.
 한유의 논설(『진학해』)인가 하고
 『시경』의 노래인가 생각하노라.
 어이 잠깐 기뻐할 만한 것이라
 아, 석 달 봄 내내 길이 좋네.
 귀를 잊음이며 마음으로 듣노라니
 또한 한가함을 지내는데 묘약이로다.
 불현 듯 연기가 골목마다 푸르스레 오르고
 해는 산에 걸려서 뉘엿뉘엿하네.
 새들도 분분하게 등지를 찾아가니
 내 마음, 뭔가 잃은 듯 착잡하여라.

尋印跡而難寫兮
悵餘音之莫追。
奈今夕之無寐兮
坐待晨光復爲期。

발자국을 찾아보나 속마음을 달래기도 어렵고
여운조차 뒤쫓을 수 없어 서러워라.
어쩔까나, 오늘밤 잠 못 든 채로
그예 새벽햇살 기다리며 만나길 기약하노라.¹³⁾

賦體는 시와 산문의 중간 장르답게 장편이어서 그 맥락을 놓치기 쉽다. 위 작품도 마찬가지다. 여기엔 소서가 하나 붙어 있다. 즉 “무자년 (1828) 봄, 내가 안질이 났다. 바보처럼 앉아서 무료하게 지내던 차, 오직 날마다 새소리를 듣는 것으로 소일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흐뭇하게 사랑스레 듣던 여가에 이 부를 짓는다(戊子春, 余得眼疾, 癡坐無聊, 惟日以聽鳥爲消遣法, 欣愛之餘, 作此賦)”고 했다. 작자가 57세 되던 해, 안질을 앓았다. 이 때문에 무료하게 지낼 적에 ‘聽鳥’를 날을 보냈던 것이다. 이미 소서에서 밝히든 ‘안질’로 인해 ‘聽’의 감각이 그에게 주요한 일상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부를 보도록 하자.

“嗟余患九旬之阿堵兮, 寂無跫音之相及”가 창작의 근원이자 배경이다. 곧 작자에게 찾아온 阿堵의 질환, 안질은 정녕 지팡이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즉 찾아주는 이 하나 없는 적묘한 삶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당연히 눈으로 책을 볼 수도 없고, 손에 일이 잡힐 수도 없다. ‘如癡’ ‘如狂’에서 작자가 겪고 있는 심란함을 느낄 수 있다. ‘于斯時也’ 즉 이 순간 새들이 날아와 적막한 환경을 깨뜨린다. 나는 ‘于斯時也’ 넉 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발상과 인식의 전환은 찰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느 순간’ 남다르게 보이고, 이전에 늘 보았던 것이건만 전혀 다른 맛으로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두는 현상계든 의식계든 순간적으로 수행된다. 작자가 무심코 던졌을 넉 자는 작자의 감각적 전환을 담고 있다. 즉 ‘눈’에서 ‘귀’, 시각에서 청각으로의 전변이다. 이후로 “來微羽之羣聚兮, 曰黃口而素羽”에서 “破庭宇之寂寥兮, 迨新晴而亦佳”까지는 새들로 인하여 바뀐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사실

13) 『存齋集』 卷1, <春鳥賦>

은 작자가 ‘귀’로 들은 내용들이다. 특히 ‘破庭宇之寂寥兮’의 ‘破寂寥’는 뒤에 나오는 ‘破闇’과 엇걸리며 이 작품의 주제를 이룬다. 특히 뒤이어 ‘鳴冬’하는 바람이나, ‘鳴秋’하는 벌레들과 비교되면서 새소리는 ‘傾聽’하더라도 질리지 않고 외려 ‘興情’을 솟아나게 하고 ‘悅耳’한다.(“使人傾聽而不厭兮, 無非興情而悅耳”) 급기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豈片時之可喜兮	어이 잠깐 기뻐할 만한 것이라
粵三春而永好.	아, 석 달 봄 내내 길이 좋네.
忘於耳而聽以心兮	귀를 잊음이며 마음으로 듣노라니,
亦破闇之爲妙.	또한 한가함을 지내는데 묘약이로다.

이제 작자는 귀를 넘어선다. 이 지점도 중요하다. ‘忘耳’ ‘聽心’ 즉 귀라는 육신의 감각기관으로 새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고 했다. 그러니 역시 ‘破闇’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患阿堵’에서 ‘于斯時也’의 전환을 거쳐 ‘傾聽而不厭’ ‘興情而悅耳’의 단계로 진입했고, 나아가 ‘忘於耳’ ‘聽以心’의 단계로 나아갔다. 안질의 상황을 겪으면서 청각을 눈뜨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肉耳를 넘어 心聽의 수준까지 진행되었던 것이다. 안질은 작자에게 또 하나의 감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곳까지 넘지시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작자는 그것이 ‘파한’에 머물렀을 뿐, 좀 더 철학적 차원까지 밀고가진 못했다. 그렇다 해도 시각의 장애에 머물지 않고, 청각을 찾아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聽以心’을 화두로 삼아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4. 육안을 넘어 心眼을 추구하다

먼저, 두 편의 시를 나란히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하나는 李穡의 시 <自詠>이고, 다른 하나는 南孝溫(1454~1492, 자는

伯恭, 호는 秋江)의 시 <(東臯)八詠訖, 又得二篇, 以寓景慕之意>(제1수)이다. 하나는 冒頭에 ‘眼疾’과 ‘狂心’을 나란히 대구로 제시하여, 안질의 근원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結聯에 ‘金篦’와 ‘那律眼’을 두어 안질의 치료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보여준다.

眼疾	年年發	눈병이 해마다 발작하니
狂心	日日新	미친 마음이 나날이 새로워지네.
詩書	養豪氣	시서로 호기를 길러 보고
藥餌	益衰身	약물로 쇠한 몸을 보양하누나.
接物	還同俗	외물 접함이 다시 세속과 똑같아지자
爲文	漸喪真	글 짓는 건 점차 참을 잃어가는구나
他年	携直筆	먼 후일에 곧은 붓대를 잡고서
末減	是何人	관대히 봐줄 이가 그 누구란고. ¹⁴⁾

西原世家與麗俱	서원의 세가는 고려와 함께했으니
上黨閥閥名東區	청주 한씨 문별은 해동에 이름 났네.
白眉人物北斗南	백미 같은 인물로 북두 이남에 제일이라
筆下歷歷生明珠	붓 아래엔 역력하게 밝은 구슬 생겨나네.
陳咸本是達官產	진함 같은 그대는 본시 고관의 자제이니
苦行何爲事築板	괴롭게도 무엇 때문에 축판을 일삼는가.
審知手中有金篦	알겠노라 그대의 수중에 금비가 있으니
知刮世界那律眼	이 세상의 면눈을 밀끔히 치료할 줄을. ¹⁵⁾

앞 시의 기련, “眼疾年年發, 狂心日日新”을 주목하도록 하자. 대구를 통하여 간단하되 강렬한 인상을 이끌어내고 있는 바, 곧 안질의 발병으로, 광심이 새록새록 일어나고 있다. 광심의 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앞서 안질에 걸린 사람이 마치 ‘如癡’ ‘如狂’과 같다는 언급을 생각해보면, ‘狂心’은 혹여 답답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의 분출, 혹은

14) 『牧隱詩藁』 卷16, <自詠>

15) 『秋江集』 卷2, <(東臯)八詠訖, 又得二篇, 以寓景慕之意>(제1수)

분출할 듯한 마음을 말하지는 않을까? 제5,6구를 보면, “接物還同俗, 爲文漸喪眞”라고 하여서, 속세와 같아진 것에 대한 불만도 엿보인다. 바로 이런 삶의 태도와 연계된 광심으로 이해된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짓는다면 끝내 ‘喪眞’만 더욱 심해져 가기 때문이다. 안질을 통해 심의 如狂한 상태, 그로 인한 일상의喪眞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得眞’의 상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색의 시는 바로 이 지점을 묻고 있다.

다음 시에선 미련, “審知手中有金篦, 知刮世界那律眼”을 보도록 하자. ‘금비’는 앞서 ‘은비’와 같이 안질을 치료하는 빗치개이다. 문제는 ‘나율안’이다. 본래 나율안은 눈이 멀었던 阿那律의 눈을 말한다. 아나율은 부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부처가 설법을 할 때 졸다가 꾸지람을 들었고, 곧 잠을 자지 않기로 맹세한 뒤 정진했다가 눈이 멀었다. 그 뒤로도 계속 정진하여 마침내 ‘心眼’이 열려서 천상과 지하의 중생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나율안은 바로 심안을 뜻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盲眼이었지만, 곧 열릴 心眼을 말한다. 본래 이 시는 韓景琦의 집안을 칭송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치료하기를 기대하면서 지은 것이었다. 따라서 시의 원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의 논의를 위하여 조금 견강부회한 바가 없지 않다. 다만 고전지식인들의 의식 속에 이 전고를 활용하여 詩意를 보강하면서 금비로 세상의 심안을 열어주는 태도로까지 자연스레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안질담론이 세상의 병증을 치료하는 단계로 올라선 것이다. 지식인으로서의 위치와 책무를 선언한 셈이다.

이제 洪汝河(1620~1674, 자 百源, 호 木齋)의 시를 보도록 하자. 그는 차후 『東儒學案』(河謙鎮, 1870~1946. 자는 叔亨, 호는 晦峰)에 오르고, 퇴계학을 존중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30대 후반 이후 환로에서 점차 자기 내면의 공부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안질’이 있었다. 그 시, <眼疾廢書 日事惺惺法>를 들어본다.

長山海北白江東 장백산 바다 북쪽 백강 동쪽에서
身世飄飄若轉蓬 신세는 바람에 날리는 쑥솜 같아라.

未了百年長作客 백년 인생 나그네 삶을 마치지 못했지만
 同來萬里主人翁 만 리를 주인옹과 함께 왔네.
 工程後面都要實 공부를 한 뒤에는 다 진실하지만
 名利前頭看破空 명리의 앞길은 부질없음을 간파하네.
 領取孔顏眞樂在 공자와 안연의 참 즐거움을 얻음에
 眼中無日不春風 안중에 봄바람 불지 않는 날 없으리라.¹⁶⁾

이 시의 핵심은 미련에 있다. 시제에서 ‘안질 때문에 책을 보지 못했다’고 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질을 앓았던 그가, 미련에서 “領取孔顏眞樂在 眼中無日不春風”라고 했으니, 안질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중무일불춘풍’이 해소로 인하여 말끔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홍여하가 안질이 해소된 원인은 바로 공자와 안연의 眞樂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학의 도를 공부했다고 하여 안질이 낫는 것으로 단일한 일치를 꾀하는 것은 다소 단선적이다. 사실 작자가 날마다 사용한 ‘성성법’이 마음이 혼매하지 않고 밝게 깨어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心經』(권1, 易坤之六二條)의 주에 “송나라 謝良佐가 말하기를 ‘敬’은 항상 惺惺하게 하는 법이다.”라고 했고, 서암이란 스님이 매일 자신에게 ‘주인옹’은 깨어있는가라고 묻고서 자신이 깨어있다 라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했다. ‘주인옹’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홍여하의 시 제4구에 나오는 “同來萬里主人翁”的 ‘주인옹’도 마찬가지다.

이제 申欽(1566~1628, 자는 敬叔, 호는 象村)의 시를 들여다보자. 그의 시는 장편이지만, 視覺이 마음의 작용임을 밝히면서 마음수양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육안을 넘어 심안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다소 사상적 아우라를 갖고 있던 홍여하와는 야간 다르다.

妙解久無全 오묘한 깨침 오랫동안 온전치 않으니
 天公憎兩眸 하늘도 두 눈을 미워했어라.

16) 『木齋集』 卷1, <眼疾廢書 日事惺惺法>

阿堵本清淨
 白翳眞贅疣
 雙簾垂寂寞
 了不分馬牛
 冥冥黑山窟
 堪笑昧自修
 傍人有問我
 視是從何由
 方其合眼時
 亦能觀窟幽
 視幽亦一視
 奚必其明求
 視雖在乎眼
 使視乃心謀
 靈關苟不閉
 餘外皆悠悠
 蒼素太區別
 易於攬悔尤
 鼻涕懶殘師
 頽滑夫豈留
 唯當斂我精
 歸與太始遊
 兹言誠密印
 佩之心自休
 掩戶南山下
 絶跡斷朋儕
 蒲團結跏牢
 萬事等蚍蜉
 井梧葉已黃
 時序向高秋
 默默類藏逃
 此樂難比侔
 且證上乘禪

눈동자는 본디 청정하거늘
 백태는 참으로 군더더기였지.
 두 눈꺼풀에 적막이 드리워지니
 끝내 말도 소도 분간하지 못하네.
 어둑어둑 흑산의 동굴 속에서
 우습게도 나의 수신에 어두우니
 옆 사람이 내게 무얼 물어본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두 눈을 감았을 때는
 어두운 구덩이 속도 볼 수 있나니
 어두운 곳을 봄도 하나의 봄인데
 왜 꼭 밝은 곳 보기만을 추구하나
 보는 것이 비록 눈에 달리긴 해도
 보게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니
 신령한 마음이 닫혀 있지 않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상관이 없다네.
 푸른 것 흰 것 너무 구별하다가는
 후회하고 원한 맷기 쉬운 법이지
 코 흘리고 게으르며 쇠잔한 선생이
 분분한 시비를 어찌 마음에 두랴
 오로지 나의 정기를 거두어 들여
 돌아가 천지의 근원과 노닐어야지
 이 말이 진정으로 교외별전이니
 이를 명심하면 마음이 날로 편하지
 남산 아래에 살면서 문을 꼭 닫고
 자취를 끊고서 친구들도 사절하고
 짚방석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으니
 만사가 하루살이 같이 여겨진다네.
 우물가 오동잎이 이미 노래져
 계절은 한가을을 향해 가는데
 묵묵히 세상 피해 은거하나니
 이 즐거움 어디에도 비하기 어렵네.
 게다가 또 상승선을 증득하니

神光透吾頭	신령한 빛이 내 머리에 통하도다.
守黑而守雌	수Dark하고도 守雌한다면
牖蒙實綢繆	어리석음 깨치는 데 주도하거니와
紛紛察毫末	분분하게 터럭 끝을 살피자면
那足貴離婁	어찌 이루를 귀하게 여길 필요 있겠나. ¹⁷⁾

이 시는 본래 청정했던 아도가 병증에 걸리면서 시작된다. 소나 말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질이 심해졌을 때, 하나의 묘안을 생각해낸다.
왜 굳이 눈을 떠야 하지? 또한 왜 밝은 곳만 바라보지? “方其合眼時”,
곧 눈을 감고 어두운 곳을 응시하는 순간, 또 다른 세계를 확보하게 되
었다. 닫음으로써 보이는 세계, 닫아야 보이는 세상은 눈을 떠야 보이는
세상에 대한 반성이요, 저항이요, 새로운 세상의 선언이다. 그리고 작자
는 본인이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다.

視雖在乎眼	보는 것이 비록 눈에 달리긴 해도
使視乃心謀	보게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니
靈關苟不閉	신령한 마음이 닫혀 있지 않다면
餘外皆悠悠	그 나머지는 모두 상관이 없다네.

‘視’는 마음의 작용이었다. 곁으로는 ‘안’에 달려있는 듯해도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시’를 더욱 본격적으로 제안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후로 작자
는 “唯當斂我情, 歸與太始遊”, “默嘿狀類藏逃, 此樂難比侔” “且證上乘禪” “守
黑而守雌” 등, 도가적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안질에 더 이상 구애되지
않는 즐거움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異婁와 같이 눈 밝은 사람이
되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안질의 극복은 ‘눈’의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근본적인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
서 홍여하가 날마다 실천했다는 성성법과도 통한다. 시제가 ‘自慰’이니, 어

17) 『象村集』 卷5, <眼病自慰>

쩌면 안질에 고통받는 자신을 응호하거나 합리화할 수도 있을 터였다.

이제 안질담론에서 육안을 넘어 심안을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공교롭게도 이제껏 다루었던 작품들이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유파, 혹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상을 대변하지 않는다. 또한 시대 역시 고려에서 조선후기까지 광범위하니,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전지식인의 사유와 감정이 고려와 조선을 경계로 급격하게 바뀐다거나, 지역에 따라 자른 듯이 명쾌하며, 사상적으로도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본다. 비록 정치적 당파로 인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과 삶의 지향은 크게 서로 어긋나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글은 시작되었고, 기대고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안질과 閱讀에 대한 의문

고전지식인들은 자랑하듯 ‘안질’에 대하여 공개해왔다. 또한 서양의 눈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빛깔을 지녔고, 종교성을 띠고 있었다는 논의¹⁸⁾를 생각해보면, 제한된 시견과 주어진 자료로만 일견했을 때, 우리 고전지식인들의 안질, 혹은 눈에 대한 논의는 다소 단조로워 보인다. 사실 학업의 진보가 두드러지지 않거나 자신의 거취가 당당하지 않을 때에 겸양의 수사로 활용한 면도 있는 듯하다.

“헤어진 뒤 더욱 애恸합니다. 문득 이 편지를 받으니 심히 위로가 됩니다. 제가 장차 퇴계로 들어가려는 것은 여러 사람의 권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역동서원으로 펴서를 와서 같이 심경을 읽는다면 자못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안질이 생겨서, 종종 그 때문에 책을 보면 기운이 노곤

18) 임철규, 앞의 책.

해지며 발병하고, 발병하면 마치 안개 속에 있는 하여, 이 헛에 공부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심할 뿐입니다. 본디 그대가 학문에 뜻을 둘에 뜻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뜻을 부여잡고 잊지 않으며, 오래도록 더욱 노력한다면, 어찌 성취가 없으리라고 걱정할 것이겠습니까?”¹⁹⁾

“요사이 안질이 심해져서 책을 볼 수가 없다. 너무 안타깝다.”²⁰⁾

두 편 모두 이황의 편지글이다. 안질이 거론되는 산문자료로는 편지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글의 서두나 말미에 안질로 인하여 더 이상 책을 보기 어렵다고 하든지, 아니면 안질로 더 이상 글을 쓰기 어려워서 이만 줄이겠다는 따위가 많다. 거의 상투적일 듯한 정도로 공부하는 학인들은 안질을 술하게 거론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황의 글은 쉽게 볼 수 있는 상례에 해당한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해 하나의 의문이자 화두를 갖고 있다. 즉 고전지식인들에게 열독과 안질은 늘 같이 따라다니는 하나의 묶음이 아니었을까? 일종의 불구의 자의식이랄까? 무언가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강화하거나 자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안질’은 늘 ‘열독’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앞서 보았듯, 喜詩에서 시작하여 看書에 이르기까지, 독서인, 창작인, 열독인들은 늘 안질에 시달렸던 듯하다. 고전지식인들이

19) 『退溪文集』 卷36, 書, 「答具汝膺」, “別後悠戀, 忽此書至. 深以慰遣. 混將入溪上, 爲諸人所勸挽, 來避暑於易東書院, 共讀心經, 頗適意也. 但眼疾, 往往因看書氣倦而發, 發即如在霧中, 以是功難接續, 可歎. 固知君志學有好意, 荷能持此勿失, 久而愈力, 何患無成. 第以門戶之故, 種種之望太迫, 只此一念, 常橫在胸中, 義理之學, 無緣入得來. 假使間或勉強掇拾來, 蔽錮者動不得, 新入者隨即消歇無覓處, 奈何. 舉業雖不可廢, 惟付之蒼蒼, 勿太汲汲, 則庶乎可耳. 惠來佳色, 披玩開豁, 此處諸人, 亦有此作. 當共藏弆, 以爲後識. 聞新卜甚佳, 然屋未成而先名, 無乃倒耶. 在今非所急也. 故未副. 惟冀深勵. 不具.”

20) 『退溪續集』 卷5, 書, 「與趙士敬」, “近況何如, 混初四日, 始拜承有旨書狀, 諭許遞職, 可遂退閒. 聖恩如天, 何以上報. 只有收拾桑榆, 少免罪過, 此一事可庶幾耳. 而病昏至此, 何能如意耶. 近日, 加以眼疾, 不能看書, 尤恨. 心經, 禮記送去, 心經既標題不善, 未免貼紙改題亦未善, 可笑.”

일상적으로 지녔던 병증으로서, 흡사 독서인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표가 된 것은 아닐까? 신체적 고통/병증을 도리어 자궁심, 자부심으로 활용한 것이다. 물론 그들은 실제로 안질의 고통을 겪었고, 그 안에서 조물주에게 하소연도 하는 등, 본인들이 선택하여 가지게 된 병증은 아니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글에서 고전지식인들이 밟아온 旅程을 차근하게 되밟아오려고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무엇보다 우리 고전지식인들의 안질담론은 눈의 발견을 거쳐 내면의 수양이란 길로 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흥미로운 특징이다. 앞서 거론했듯, 시대, 인물, 지역, 사상 등등에 약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방향성/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李玄逸(1627-1704, 자 翼升, 호 葛庵)의 편지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여기에는 조선후기 유학자들이 닦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 또한 안질을 앓았었다.

“저 현실은 습기와 열기에 지치고 눈병까지 앓아 눈을 감고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매우 무료함을 느낍니다. 이어 생각건대, 朱子께서 일찍이 이르시기를, “근자에 眼疾에 걸려 눈을 감고 꽂꽂이 앓아서 고요히 본원을 함양하는 공부를 자못 얻었으니, 도리어 일찍 눈이 멀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 하였으니, 옛 현인들이 만나는 환경에 따라 공부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凡庸한 사람은 한 가지라도 병고가 있으면 마음이 어지럽고 고갈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賢愚의 차이가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니, 우습고 한탄스럽습니다.²¹⁾

21) 『葛庵集』 卷8, 「答丁君翊」, “數月之內, 連承寵翰, 從審溽暑, 尊候支宜, 腰脚痛楚之苦, 雖是尊年例患, 不能不爲之奉慮. 但以筆勢遞健, 書辭宛委, 足驗精力猶不衰也. 玄逸濕熱蒸鍊之餘, 重患阿堵, 瞑目度日, 甚覺無聊. 仍念朱夫子嘗有言近得眼疾, 閉目兀坐, 頗得恬養本原之工, 却恨盲閉之不早. 昔賢隨遇做工夫如此. 如弟凡庸, 一有所苦, 憶耗至此, 賢愚相去, 真不啻九牛毛, 可笑可歎. 廣卿逝去, 傷慟在心, 迨今不釋, 承諭亦同此懷也. 相望落落, 謐晤無期, 臨書倍覺沖悵. 惟祈若序珍重, 四七辨, 十年前承辱教之勤, 率爾論著, 思一仰質而不可得. 今因俯索, 謹此求教, 學薄識淺, 言豈一一中理, 切望斤教, 破此懵滯爲幸. 此等說話, 似不可示人. 其間又有與小友輩往復文字, 尤不可以煩人聽聞. 且此書家無餘件, 經覽後幸因的便還擲, 千萬千萬, 辨誣錄中文字, 間脫誤處, 誠如尊教, 依示填補似好耳.”

참고문헌

李崇仁, 『陶隱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李檉, 『牧隱集』
權近, 『陽村集』
李荇, 『容齋集』
李敏求, 『東州集』
洪汝河, 『木齋集』
元天錫, 『耘谷行錄』
曹偉, 『梅溪集』
林億齡, 『石川集』
崔演, 『艮齋集』
李民宬, 『敬亭集』
宋文欽, 『閒靜堂集』
李萬運, 『默軒集』
朴允默, 『存齋集』
李種杞, 『晚求續集』

고대원, 「조선 숙종의 치병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
교 박사논문, 2015, 57-61쪽.

강민구, 「한문학에 나타난 갈등의 문학적 해소-申欽의 질병으로 인한 갈
등과 해소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3, 동방한문학회, 2010,
7-36쪽.

_____, 「金宗直의 질병과 문학적 표출」,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
회, 2010, 7-33쪽.

김 호, 『조선왕실의 의료문화』, 민속원, 2017.

- 이봉상, 「강주좌천 이전 白居易의 질병과 詠病詩」, 『중국문학연구』 41, 한국중문학회, 2010, 1-32쪽.
- 이상원, 「조선 顯宗의 치병 기록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예송논쟁이 현 종 질병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11, 47-50쪽.
- 임현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 조나단 크레리, 임동근·오성훈 외 옮김, 『관찰자의 기술-19세기의 시각과 근대성』, 문화과학사, 2001.
- 한창현·박상영·안상영·권오민·이봉효·안상우, 「국내침구서적의 眼疾患 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校勘 舍岩道人鍼法』의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2-1,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9, 79-95쪽.

<Abstract>

A Study on the ophthalmopathy and its
Meaning of Classical Intellectuals
- The Discovery of Eyes, The Way of self-cultivation -

Kim, Seung-Ryo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inese poem written by classical intellectuals on eye disease, which they discovered the eye, identified the senses different from the eye, and ultimately dreamed of the eye of the mind.

For classical intellectuals, eye disease was a disease that was always common in everyday life, but nobody know exactly what the symptoms were.

The eye disease was a chance to reconfirm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eye', but it did not stay here, but it was an opportunity to open up to the senses such as the eyes and other senses, such as the ears (auditory). In addition, as they pursued the world of the eyes of the mind that did not stay in the eyes of the body, they gradually deepen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senses. However, intellectuals used eye disease to prove how much they studied, and even tried to resemble eye disease of their academic model. For them, eye disease was a way of self-discipline.

Given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discourse related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Pusan National University.

to the eye disease and look at the historical and aesthetic meaning of the eyes.

Key Words : Classical intellectuals, Eye disease(ophthalmopathy), self-cultivation, the eye of the mind, sense

* 부록. 眼疾漢詩資料初編

작자	字·號	출전	제목	원문
1 李崇仁 (1347-1392)	본관 星州, 자 子安, 호 陶隱	陶隱集 卷2	眼疾	阿堵昏花未易醫 彼蒼嗔我好看詩 逢人豈作嗣宗白 視物眞成老子夷 翻覆多時尤有味 妍媸擾處竟無知 閉門塊坐蒲團上 遮莫兒曹笑大癡
2 李奎報 (1168-1241)	본관 黃驪 자 春卿, 호 白雲居士, 三酷好先生, 시호 文順	東國李相國 後集 卷10	七月八月, 因 患眼不作詩. (八月二十九 日作 九月初 二日卽世)	比因左目患 久矣不作詩 猶有右目 存 云何迺如斯 君看一指傷 滿身苦 難支 安有目官慟 同類恬不隨 興復從何 出 而事作詩爲
3 釋 天因 (1205-1248)	천인 스님, 고려 高宗 때 天台宗 승려, 시호 靜明國師	東文選 卷14	舟次南海 得 眼疾 寄常寂 法主	行盡滄洲幾日程 此行還似督郵行 衲衣久被風塵涴 物色潛隨歲月更 已信幻泡非我有 更憐疣贅寄他生 若爲洗盡空華眼 常寂光中一笑呈
4 李檉 (1328-1396)	본관 韓山, 자 穎叔, 호 牧隱, 시호 文靖	牧隱詩藁 卷16	自詠	眼疾年年發 狂心日日新 詩書養豪 氣 藥餌益衰身 接物還同俗 爲文漸 喪眞 他年携直筆 未減是何人
5 權近 (1352-1409)	본관 安東, 자 可遠, 호 陽村, 시호 文忠	陽村集 卷3	眼疾 二篇寄 李斗帖(辛酉 冬作)	不識肝將病 惟誇眼尚明 居然阿堵 裏 忽有翳花生 銀海光常眩 金篦刮 未成 當風先出淚 視物却逃睛 豈是播糠 昧 恐爲因色盲 離群眞子夏 遁世異 逢萌 莫與文章美 何曾內景清 臨池慚逼 語 降渚畏歌聲 兀兀只知睡 昏昏無 所營 羨君虛白室 宴坐閱書精 熱濕蒸爲患 瞒矇視不明 昏昏惟瞌 睡 默默愧偷生 自信年方壯 那知病 已成 未能移氣體 曾莫護瞳睛 左氏禍焉 避 張公心不盲 甚慙眸子眊 須擴善 端萌

					欲見故人至 願聞天下清 會當瞻日色 何至認錚聲 藥物宜先備 貨財不必營 羨君青白眼 玩世闊人精
6	李荇 (1478-1534)	본관 德水, 자 擇之, 호 容齋·滄 澤漁水· 청靑鶴道人。 시호 文定, 文憲	容齋先生集 卷3	邇來 兩眼昏 昧益甚 造物 相厄 乃至是 耶 聊以長韻 敍意 大書奉 投挹翠軒	我性喜詩又喜酒 天意亦應忌兼併 百窘千窮觸時諱 此事未足當吾病 去年喪明乃無妄 有似游塵翳清鏡 本不好讀頗更懶 但憂未與人事屏 邇來昏暗復太深 舊號無罪今安命 夜戒僮僕莫舉燭 曉帷怯見陽輝映 細字錯亂已難尋 大字更覺龍蛇橫 昔賢觀人取眸子 懊我胸中或未正 雖然折足亦非禍 疾瘳焉知不爲慶 小兒導余勸窺園 繁繁霜菊秋容靚 良辰寂寞方獨醒 此生觀渠幾衰盛 白頭臨風發三嘆 不能自己聊飄詠 城南佳士且未見 落日祇令心忉忉 願借銀篦刮兩曠 湖海清游得究竟
7	李敏求 (1589-1670)	본관 全州, 자 子時, 호는 東州· 觀海·神堂副 守	東州詩集 卷21	眼病 未嘗廢 飲 十日眼病 瘥戲書	眼汝職司明 爲口視食品 可食不可 食 取舍必先審 及眼病昏翳 口亦失 所稟 何嘗爲眼謀 未肯廢湛飲 三杯熱生 花 眇淚流滿枕 懼其瞽疾成 獨心恒 懷懷 十日眼方蘇 美祿寧少寢 相資却相 負 瞽然厭豐飪 眼有君子度 口乃小 人甚 牖戶眼爲官 口實猶倉廩 古人於辭 受 受羹而反錦 口業固如此 傾壺破 寒凜
8	洪汝河 (1620-1674)	본관 岳溪, 자 百源, 호 木齋· 山澤齋	木齋集 卷1	眼疾廢書 日 事惺惺法	長山海北白江東 身世飄飄若轉蓬 未了百年長作客 同來萬里主人翁 工程後面都要實 名利前頭看破空 領取孔顏真樂在 眼中無日不春風
9	李檉 (1328-1396)	본관 韓山, 자 穎叔, 호 牧隱, 시호 文靖	牧隱詩藁 卷33	柳巷先生邀 僕同訪雙清 安公夜話 以 眼疾辭 因題 一首	病骨難於坐露臺 燭花應與眼花猜 雙清亭上如灌酒 空想銀蟾浸玉杯

10	元天錫 (1330-미상)	본관 原州, 자 子正, 호 耘谷	耘谷行錄 卷3	二十九晦日 雨雪大作 因 眼疾甚無聊 以示二三子 三首	郊居寂寂絕經過 終日霏霏雨雪多 病眼朦朧休顧望 幽懷壹鬱但吟哦 似聞雲鵠盈臺閣 那見沙鷗到網羅 欲與春工賭強壯 掫予衰老付陽和 初春光景轉頭過 且問良辰有幾多 一去少年無更返 每逢三月可清哦 煙籠岸柳搖黃線 氷釋溪流漾碧羅 行樂及時須記取 雪晴風日轉暄和 幾許榮枯眼底過 浮生樂事未言多 功名未可成汪計 憂患難應入醉哦 野興逢春濃似酒 世情隨日薄如羅 綠蓑青蘋桃花水 苦憶山陰張志和
11	曹偉 (1454-1503)	본관 昌寧, 자 太虛, 호 梅溪, 시호 文莊	梅溪集 卷2	奉和崔台甫 先生韻 五首	兩鬢星星染皓華 雙瞳其奈着輕紗 紫稜昏濛疑安障 銀海朦朧怯眩花 子夏文章終衛道 太沖詞賦自成家 世間會有金篦手 莫恨天衢望未賒 (右次眼疾韻)
12	林億齡 (1496-1568)	본관 善山, 자 大樹, 호 林石川	石川詩集 卷2	贈梁公變東 坡一帙八韻 律詩 三首	常嫌賈島瘦 每恨聖俞枯 軾也飛長筆 雄哉鼓大爐 老夫多眼疾 此物棄箱隅 贈爾惟投分 酬恩敢望珠 兒時猶惜費 近日亦忘吾 臥榻風敲竹 懷君雪塞衢 遙憐多病馬 誰憇弊裘蘇 苦憶令人瘦 松齋鶴與俱
13	崔演 (1503-1549)	본관 江陵, 자 演之, 호 良齋, 시호 文襄	艮齋集 卷2	眼疾 三十韻	早歲嬰憂患 中年減視聰 孤根難托地 朽幹易生蟲 眼界翻成霧 肝家已受風 非緣糠播昧 祇是病來攻 嶄蝕孤輪月 塵侵百鍊銅 先疑迷五色 却恐眩雙瞳 淚睫淋常纈 眇眶澁不通 開花看翳翳 遇物視瞢瞢 始訝忘南北 今嫌亂白紅 空聞談賭馬 那見送飛鴻 湯熨謀誠短 金篦術未工 欲張猶翳障 強揩轉

					朦朧 不辨輿薪大 難分泰岳崇 着籬嘲主簿 降渚怨湘東 深羨懸珠溯 多羞閃電戎 昏昏唯瞌睡 啾咄只書空 競夕常辭客 經旬每倚櫈 早眠宜懶性 損讀有奇功 廢頰顏留垢 傭梳鬢轉蓬 藏杯封酒甕 閣筆掛詩筒 鍼石詢醫士 陰晴問僕童 徒憐身縮鼈 無復氣干虹 避世逢萌異 離群子夏同 養生乖叔夜 推命訊虛中 眸子懸昏睡 善端可擴充 禍雖疑左氏 心不暗張公 自歎浮生困 還知賦命窮 深思投組紝 更欲脫樊籠 安得能瞻日 終教快發蒙 不欺居屋漏 安養保微躬
14	李民宬 (1570-1629)	본관 永川, 자 宽甫, 호 敬亭	敬亭集 卷8	花川患眼疾 作歌見遺 戲 次贈之	昏花故着雙瞳珠 金篦妙刮未試手 睫內頑膜如脂腴 公胡妄想戀酥胸 譬如將身火中投 直不焚身是幸耳 無怪公之眼不瘳 我有一方號還睛 請公試之良得效 大抵稟胎眼先具 一身于此藏神妙 五色盲人語不虛 侵蝕多因外誘至 嘉陵一路饒脂粉 公病自致非人致 請公寡欲運內視 神光返照明雙眸 方藥元來外物爾 黃連乳液煩和樣 君不見 秦臺神鏡無塵垢 燭人肝膽知妍媸 雖然此疾不須醫 閱人朦朧還亦宜 閱人朦朧自有味 (看字昏澁尤宜懶 本山谷老人詩)
15	李民宬 (1570-1629)	본관 永川, 자 宽甫, 호 敬亭	敬亭集 卷8	奉次趙花川 寄韻 原韻外 增二韻	清明二月是中旬 萬里風光惱殺君 燕子欲來開小閣 桃花將發掩重門 黃連作末難除膜 玉乳成膏易撥雲 別恨漸濃山秀黛 情書久斷雁迷群 鳳衫猶帶嬌紅濕 鬪扇空藏舊麝薰 消遣一春無限意 可憐抱渴病文園

					(花川患眼疾 作黃連歌 寄情於嘉興人 故戲及之)
16	宋文欽 (1710-1752)	본관 恩津, 자 土行, 호 閑靜堂	閒靜堂集 卷1	伯氏書言 因 觀釋氏書 致 眼疾。率爾 奉規。	華嶽高巒曉 歲暮風雪盛 巍谷蓬且 阻 中棲我家孟 厥茲室家累 不辭雲 霞叟 蔬食隨法侶 息慮養真性 前日寄書 至 頗喜心神定 云讀貝葉書 復致輪 廓病 色相信玄宵 了寤開妙徑 匪謂昭明 志 愛此真如淨 安車虞銜槧 平塗慎 機笄 嘉木根未固 風雨易凌競 往哲或沈 淪 遂失道義正 况復事攝養 諒宜收 視聽 瞑目絕邪誘 靈源內涵泳 精力未可 分 庶使素願竟
17	李萬運 (1723-1797)	본관 咸平, 자 仲心	默軒集 卷1	眼疾自嘆	半日開明十日閉 暫時無苦長時呻 堪嗟七十多年活 不及他人七箇春
18	朴允默 (1771-1849)	본관 密陽, 자 土執, 호 存齋	存齋集 卷9	眼疾書悶	今日看一書 明日讀一書 季春三十日 寓懷書中於 既忘逆旅苦 且尋童子初 誰道日苦永 我云猶未徐 中心頗欣滿 若獲大庫儲 忽有眼疾生 鬱鬱將何居 譬如泥中珠 埋沒光未舒 又如檠上燭 淬穢苦未除 閉目而袖手 百事墮空虛 迷茫觸烟霧 牽掣劇籠篋 春晷真可惜 客恨尤何如 向日天所付 感激若偏余 鬼魔欲猜之 此疾忽作歎 心以降此怪 逐彼廣莫墟 不日當見瘳 電光映幽裾 床頭續舊好 庶可免墨猪
19	李種杞 (1837-1902)	본관 全義, 자 器汝, 호 晚求, 茶園居士	晚求續集 卷1	歸家有眼疾	旬五風行眼目奇 壯遊歸後只昏眵 細推物理皆如此 蠻屈龍伸與境移

■ 논문접수 : 2019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9년 8월 12일

■ 게재확정 : 2019년 8월 19일